

01 교회소식

영적 성장 프로젝트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축복의 비결을 알려 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읽기 2차가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다.

03 기획특집

행복한 마음을 찬양으로~

만민 성도들 가정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은혜의 간증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간증을 들어본다.

04 간증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순간에 무기력증과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만성 위염과 안구 질환이 치료되는 등 몽골, 인도, 콜롬비아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43호 2021년 5월 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제2차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호응 속에 ‘전 성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가 2차로 지난 5월 2일(주일)부터 오는 6월 26일(토)까지 8주간 진행된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한 교역자 회에서는 1차에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들로 이뤄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10권에 이어 2차에는 6권을 선정했다. 성경 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와 주제설교 모음 십계명 편 『하나님의 법도』와 팔복 편 『참된 복을 좇는 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책들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엘리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결과는 어떤 축복으로 돌아오는

지 깨닫게 함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십계명의 영적 의미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팔복 말씀으로 축복의 비결을 알려 줄 것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진행된 제1차 ‘당회장님 저서 읽기’에 참여한 성도들은 영적 성장은 물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명호 집사(남, 67세)는 3년 전부터 오른쪽 발꿈치에 12개의 티눈으로 인해 신발을 신기도 불편했고, 운전할 때는 통증이 심했으나 ‘당회장님 저서 읽기’에 동참해 책을 읽으며 ‘신년 작정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던 어느 날, 12개의 티눈이 모두 사라지고 두꺼운 각질도 벗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옥숙 집사(여, 67세)는 오른쪽 눈의 눈물샘이 막혀

책을 조금만 읽어도 금세 눈이 충혈되며 따갑고 아팠으나 행사 참여 중 어느 순간 치료돼 하루에 책을 5시간 읽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통해 불면증이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돼 안경이 필요 없게 되며, 19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아들이 돌아오는 등 다양한 간증들이 접수되고 있다.

만민뉴스 창간 34주년
1987. 5. 17.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사람이 원하는 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지요.
사람이 보기에는 지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주시지요.
믿은 것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 열왕과 열방이 몰려와 구원받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등 이를 이루고자 우리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았으며, 사방으로 육여싸인 것 같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만일 만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단순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큰 성전 건물을 짓는 것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벌써 모든 사명을 완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과정에서 맺히는 경작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때 대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참 자녀의 수가 넉넉히 채워졌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어가는 세계 선교는 악에 깊이 물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움직여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온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지요.
이런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에 따라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누가복음 2:11~12)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든지 호화로운 장소에서 존귀하게 태어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초라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게 하신 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적으로는 초라한 우리에서 태어나셨으나 영적으로는 지극히 영화롭게 태어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눅 2:14).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하게 하시고 영광의 빛으로 두르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선한 목자들들과 동방 박사 등 예비한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무수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오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을 겪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이유

누가복음 2장 1~7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낳은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인구 조사를 위해 호적 만들 것을 명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 있던 모든 유대인 역시 자신의 고향, 혹은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만들어야 했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도 호적을 만들기 위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로 해산할 날이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동함으로 인해 여관에는 묵을 곳이 없었지요.

마리아는 결국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하게 되었고, 마땅히 낳 만한 곳이 없어 아기를 강보에 싸서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일까요?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

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해 보시니 짐승과 다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니 이상히 여길 수 있지만 그 악함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고소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차츰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어가 세상 정욕과 자기 욕심에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러한 사람은 혼과 육으로만 지은 짐승처럼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에서 벗어나 사람의 본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 나가는 것이고(잠 8:13)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사람의 본분을 되찾는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공부해라” 당부하며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사람의 본분을 다해 축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알려 주시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섬세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참된 영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2.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길을 가신 이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가난한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탐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항상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타락한 뒤로는 사람과 함께 만물도 저주받아 탐 흘려 경작해야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창 3:17~19). 모든 사람이 가난을 겪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가난이 영적 가난을 의미한다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잉태돼 나신 분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도 가난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요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과 공의 가운데 행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처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서도 그의 자녀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기를 원하시지요(막 11:24). 그러나 아무리 원해도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으며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깝고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해도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

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갈 6:7).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해도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고후 9:6).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곧 감절 이상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만큼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갚아 주시지요.

여기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은 단지 액수나 분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심었는지 그 중심의 향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차한 중에도 자기 소유의 전부와 같은 두 렵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중심의 향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로 심었다 해서 물질로만 갚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물질로 주시지 않아도 영혼이 잘되게 하

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지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총을 받았으며,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쌓았던 도르가라는 여인은 죽었다가도 기도받고 살아나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사람들의 가난을 대속하고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부요케 하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향물~

지난 4월 4일, ‘부활절 기념 가족 찬양대회’에 참여한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은혜의 간증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 그 가운데 세 가정의 행복한 간증을 들어본다.

“간절히 기도하니 터진 고막을 재생시켜 주셨어요”

이월 집사 (35세, 박준우 어린이 가족 팀)

저희 가족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만민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2018년 설 만남 때에는 저의 어머니가 당회장님과 믿음으로 약속한 뒤 난소암을 치료받으셨지요. 하지만 제 신앙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어느 날, 제 왼쪽 귀의 고막이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사고 직후 곧바로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고막이 3분의 2 이상 손상돼 조금 지켜보다가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저를 돌아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고막은 저절로 재생돼 완전히 정상이 되었지요.

이 일을 계기로 제 신앙은 변화되었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 영광 돌리게 되었는데 인기상까지 주시니 매우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백혈병 치료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이혜경 집사 (56세, 광주만민교회 사랑 팀)

저의 큰 아들 원빈이(21세)는 4살 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혼해 늦게 얻은 첫 아이였기에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귀한 아이였지요. 그러한 아들이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4년 그 당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1일 부흥성회 인도 차 광주에 오셨습니다. 저는 당회장님께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아들의 백혈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이후 건강하게 자란 원빈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하며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주일 대예배만 드리던 저희 가족은 저녁예배까지 온전히 드리게 되었고,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찬양대회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에 대화하는 시간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더욱 화목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의 질병이 치료되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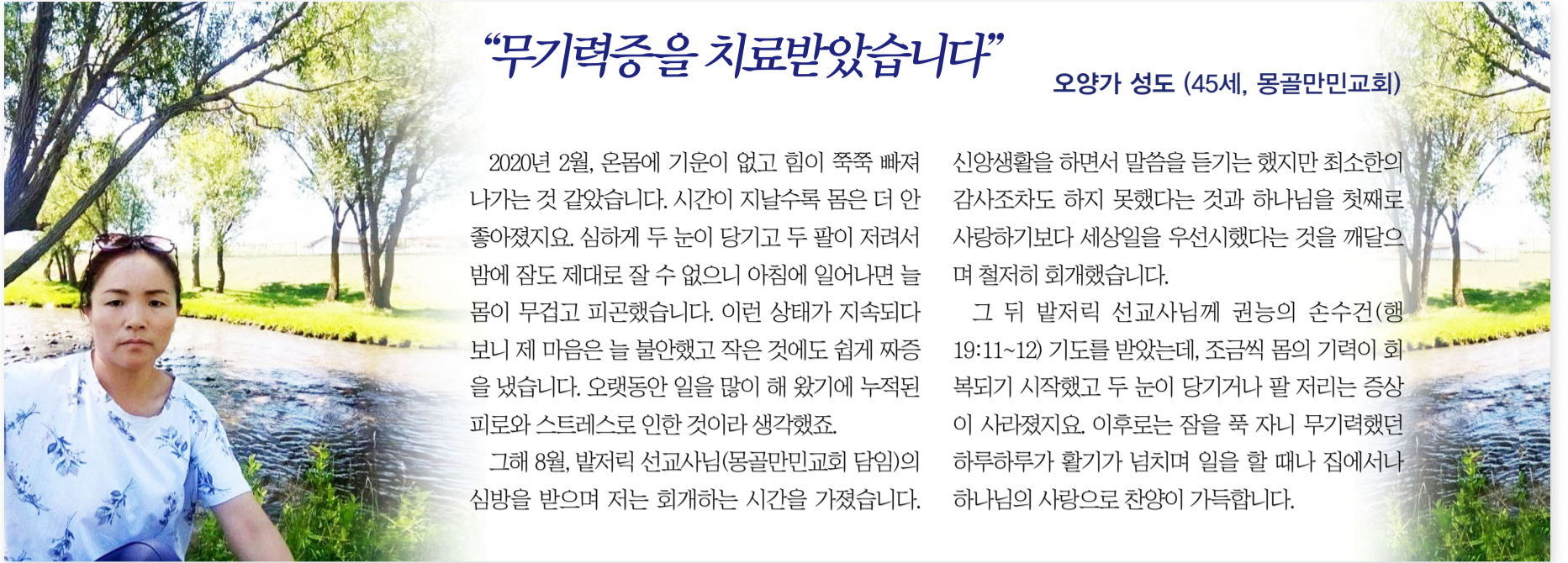
조성범 집사 (66세, 영광 팀)

저는 이웃나라에 거주하던 당시 한국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위성 안테나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체의 실수로 GCN 안테나가 설치되었고, 자연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저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자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저는 술, 담배로 인해 간 수치가 높아서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었고, 옆구리는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했습니다. 또 심한 위궤양으로 김치같이 매운 음식은 전혀 먹지 못했지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니 몸이 아워서 생활하기에도 힘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위, 간, 심장이 약해 약을 먹어야만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등록 후 2개월여 만에 저와 아내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었고, 2020년에는 딸도 손발 저림과 수족 냉증을 치료받았지요.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찬양대회에 참여했는데 금상까지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기력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오양가 성도 (45세, 몽골만민교회)

2020년 2월, 온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쭉쭉 빠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안 좋아졌지요. 심하게 두 눈이 당기고 두 팔이 저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늘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제 마음은 늘 불안했고 작은 것에도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해 왔기에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생각했죠.

그해 8월, 발저리 선교사님(몽골만민교회 담임)의 심방을 받으며 저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감사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보다 세상일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깨달으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뒤 발저리 선교사님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는데, 조금씩 몸의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두 눈이 당기거나 팔 저리는 증상이 사라졌지요. 이후로는 잠을 푹 자니 무기력했던 하루하루가 활기가 넘치며 일을 할 때나 집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이 가득합니다.

“단번에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속 성도 (37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절망에 빠져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어느 가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알 수 없는 어느 분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바로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셨습니다.

델리만민교회 성도님이셨던 가게 주인의 인도로 저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휘 담임목사님께서 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린이 돌보듯이 자상하게 보살펴 주셨지요.



당시 저는 오랫동안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할 때나 걸을 때 자주 앉아서 쉬어야 했고 통증으로 피로감이 컸지요. 하지만 그 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고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사라져 지금까지 통증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일도 온전히 지키고, 물질에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주일에도 근무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업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일에 휴무하고 월급은 인상되는 축복을 받았지요. 가정의 복음화도 이뤄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 위염과 안구 질환을 치료받았어요”

라겔 모레노 성도 (39세, 콜롬비아만민교회)



저는 수년 전부터 시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햇빛이 나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제 눈을 매우 불편하게 했고, 눈에 따가움도 심했으며, 두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고 불편했지요.

또한 16년 전부터 위장에도 문제가 많아 위염과 쓰라림으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치료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남미 랜선 은사집회’가 열린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

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콜롬비아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회에 참석한 저는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 강사 이복님 원장님께서 해 주시는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그때 마음에 기쁨이 임했고, 두 눈과 목에 뜨거움을 느꼈지요.

그 뒤 위염과 쓰라림이 사라지고 시력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영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